

美術作品을 통하여 본 齒科医学

金星齒科医院

金圭炆

作者 年代미상

이 그림의 표제는 Verse of the Depiction으로 그 설명서에

Ye Worthies in the British nation
Attend to my new operation
Let Colts-jeeth, or decay'd ones Come
My pincers quick shall ease your gum.

이 그림은 대체로 14C~15C의 Flemish or Dutch 학파들이 많이 사용하던 발치감자가 등장하고 있다.

구성은 비교적 단순하며 그림하단에 네장간 기구로 방금 만들어서 환자에게 발치 감자를 시험해 보고 있다.

호기심에 찬 부인(아미도 치과의사 부인?)과 지옥의 사자에게 끌려오는 악마같은 표정의 환자와 잇몸을 상하지 않고 치아만 뺄 수 있다고 자랑하는 치과의사(그 당시에는 돌파리의사)의 3인만 등장하고 있다.

치과의사의 거만한 눈초리,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에찬 두손, 그 손속에 거머 쥔 구두 수선쟁이 같던 발치감자가 요즘 사용하는 ss white의 No.16 감자의 원조라도 될 것이라는 예언을 그 미소속에 담고 있는것 같아 보인다.



研究와 精進을 指向하는

寶城合金 寶城齒科技工所

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65
代表 朴允三

☎ (53) 3411 (55) 3024